



김창경 연세의료원 내과계 수간호사

“저는 늘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왠지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위엄과 자상함, 빈틈없는 표정. 병원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수간호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 실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세의료원 내과계 수간호사 김창경씨를 만났다.



“나 는 당신편입니다. 당신을 도울 힘이 된다면 기꺼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그가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환자라면 그를 보면 기대고 싶을 것이고 앓던 병도 그가 어루만져주면 다 나을 듯 싶다. 의료인으로서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닌가. 위엄과 권위는 자신이 주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님을 그를 보면 알 수 있다.

>> 환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

1987년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새내기 간호사에서 어느덧 이제 수간호사로서 아픈 이들이 의지하는 믿음직한 지주가 되었다. 오전 7시에 출근, 지난 밤부터 그때까지 병원을 비웠던 시간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입원환자들을 모두 둘러본다. 그때그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 해결한다. 직접 차트를 검토하고 회진 가이드를 한다.

“간호사는 직접 해야하는 물리적인 일들의 의무가 많아서 자칫 환자의 심적인 불안감, 아픔, 두려움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정서적 지지자의 일이 수간호사로서 그의 몫이다. “특히 HIV 감염 입원 환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살피는 그의 친절을 배우고 싶다는 김보경 간호사의 말로도 김창경씨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그가 일하는 세브란스엔 에이즈 환자 병상이 있다. 에이즈가 처음 나타난 지 얼마 안됐던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

“그때 에이즈 환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존중보다는 불명확하고 위험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병실 문에 에이즈 환자가 입원해 있는 곳이라고 써붙여두고 환자의 물건은 모두 소각 처리했지요. 지금이야 전파경로가 명확하니 그런 행동들이 우스운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공포스런 존재였는지요.”

김창경씨도 처음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다. 특히 어려웠던 건 자신의 도덕적 판단 기준 때문에 마음이 쉬게 열리지 않는 일이었다.

누구나, 지금도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뭔가 잘못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는. 이제 마음으로도 안다.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없음을. 감염인들도 한치도 나름이 없는 똑같은 환자임을. ‘예써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이제 마음으로도 안다.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없음을.
감염인들도 한치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환자임을.
'애써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김 간호사는 늘 반성하고 자신을 새로 만들려 한다. "HIV 감염 환자 중에 응급실에서 난폭하게 행동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입원 후에 그 환자는 '응급실에서 난폭한 환자'로 각인되었죠.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그 환자분이 '입원한 후에 한번도 그런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선입견이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하는 뒤늦은 염려가 생겼다.

그가 환자를 대할 때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 "감염 환자들은 특히 예민하고 피해의식, 열등감을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늘 환자의 편이라는 것, 언제든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환자가 느끼도록 하는 마음말이다. 외로워하는 환자에는 의지가 되어주려 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환자에는 심리적으로 독립하도록 일부러 분명한 선을 긋는다. 지나친 기대를 했던 환자가 배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이다.

에이즈로 인한 2차감염으로 입원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핵이 심하여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던 20대 초반 환자가 회복되어 인공호흡기도 떼고 퇴원했을 때 저절로 '고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김창경씨 스스로가 새생명을 얻은 기쁨이었다.

>> 감염인도 똑같이 사회의 소중한 사람임을...

"감염인이란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감염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텐데." 감염인으로서 상처받기 싫은 그들을 이해하지만 그 것만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생각이다. 체감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만큼 큰 힘이 있을까.

점점 많아지는 에이즈 감염인들의 수를 접하면서 문득 절박함을 느낀다. 빈틈없는 관리가 아쉬고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서 갖추어 차별없이 아픈사람은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아이들이 왜 공부하라고 하나고 몰으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니 잘되라고' 하잖아요. 일본 엄마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대요. 배울 점이 많은 말 아닐까요?" '나'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제 옆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그의 마음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보통 사람인 그지만 간호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감당하려는 것이 삶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감염인들도 비감염인과 같이 사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말이다.

김소라 레트리본 기자